

부모자녀 관계 이해하기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그래서 어쩌면 더욱 멀 수도 있는 부모자녀 관계,
제 3자가 모두 알 수 없는 영역도 있기에 그만큼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1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가깝다고요?

- 초등학교 입학 이후, 아이들의 삶의 무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 공동체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협동과 경쟁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자아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가는 시기입니다.
- 따라서 부모와 거의 한 몸처럼 지냈던 영유아기와는 달리, 아이들은 점차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아이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자라나는 건강한 성장과정이지만,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는 복잡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아동·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부모가 더 이상 '가장 가깝고 내 모든 것'으로만 여겨지지 않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 하지만 많은 부모는 이 변화의 시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여전히 자녀를 '품 안의 아이'로 여기고, 실제로도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자녀를 보며 자연스럽게 보호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나 방식대로 따라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때 실망이나 갈등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갈등은 종종 드러납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경우나, 때로는 학생의 의견처럼 포장된 부모의 생각이 교사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괴로워하는 학생을 마주할 때, 교사로서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2 교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부모 자녀 관계로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의 이야기를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모와의 갈등, 수용 받지 못함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외로움과 혼란을 겪습니다. 그 외로움이 부정적인 방식의 일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사가 그 마음을 따뜻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학부모님께, 학령기 이후 자녀는 더 이상 '내 품 안의 아이'로만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 과정에서는 부모-자녀 간 경계가 무의식적으로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자녀 수가 적은 요즘에는 그 밀착도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밀착은 도리어 자녀의 자율성과 건강한 정체성 발달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 이럴 때에는 교사라는 제3자의 시선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제대로 돕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 역시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교사가 맡은 학생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 ▶ 소아·청소년기는 독립적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연습의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과정을 아이 혼자 감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모의 적절한 지도와 정서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가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때 교사의 관심과 지원은 아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관계로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영유아기를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는 연령이기에 부모뿐 아니라, 학교 내 믿을 수 있는 어른의 세심한 관찰과 수용을 통해서도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관한 문의사항은 다음의 주소로 접수 가능합니다.

 smhrc@schoolkeepa.or.kr